

광주서 7년 만에 초등학교 개설…과밀 해소 기대

북구 용두동 ‘참미르초’·광산구 운수동 ‘운수초’ 올 3월 개교…주변지역 초등학생 수요 분산 효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에서 7년 만에 신설 초등학교가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월1일 ‘참미르초등학교’와 ‘운수초등학교’가 개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빔여울초등학교 이후 7년 만이며, 2020년대 들어 처음 신설되는 초등학교다.

참미르초는 광주 북구 용두동과 신용동 일대 공동주택 입주 증가에 따른 취학 수요 증가를 반영해 설립됐다.

학교 규모는 일반 27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28학급이며, 병설유치원은 일반 3학급, 특수 1학급 등 4학급 규모다.

개교 시 학생 수는 1학년 136명을 포함해 총 525명이다. 완성 학급이 되면 최대

37학급(일반 36·특수 1), 957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미르초 개교로 기존 과밀 문제가 지적돼 온 ‘용두초등학교’와 ‘본촌초등학교’의 학급 과밀 현상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두초의 경우 2025학년도 기준 4·5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각각 25.1명, 26.1명 수준으로 과밀 현상이 나타나 바 있다.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신설되는 운수초는 일반 12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13학급 규모로 출발한다.

개교 시 학생 수는 1학년 55명을 포함

해 총 202명이다. 완성 학급이 이뤄지면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31학급으로 확대돼 최대 583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운지구는 학교 부족으로 지역 내 과밀이 심각한 지역으로 좁혀왔다. 선운지구 학생이 배정되는 ‘선운초등학교’의 2025학년도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4.4명 수준이었다.

운수초 개교로 2024년 입주가 시작된 선운2지구 공동주택 거주 학생 수요가 분산되면서 선운초 과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6학년도 선운초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2.0명으로 전년도보다 2.4명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개교 전 시설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통학 안전 여건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참미르초와 운수초 개교를 통해 북구와 광산구 지역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 학습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규 도입…“적극 대응 결실”

광주 광산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과 함께 지원 혜택까지 확대되며 지역 고용 안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고용노동부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8월 27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광산구가 추진해 온 다각적인 대응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된 이후 현장 밀착 행정을 통해 정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지정 연장 필요성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현재 광산구는 가전, 타이어 등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여전히 고용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정 연장은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연장과 함께 지원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 ‘고용위기지역’에만 적용되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제도 개편을 통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한 뒤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절반(대기업 3분의 1) 수준으로, 기업의 고용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국립목포대, 메이커스페이스 ‘전국 최우수’

전남 제조창업 핵심 거점 위상 입증

국립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가 운영하는 ‘MNU메이커스페이스 전문팀’이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최우수)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로 목포대는 대한민국 제조창업 지원의 최정상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49개 운영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창업 연계, 이용자 만족도, 기업지원 우수사례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MNU메이커스페이스는 단순한 창작 공간을 넘어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제조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

를 받았다.

실제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연간 이용자 수 7000명 이상, 신규 창업 37개사, 시제품 제작 2000건 지원 등 양적 성과와 함께 투자유치 40억원, 판로 지원 80건, 제품 상용화 50여건 등 질적 성과도 고르게 달성했다.

MNU메이커스페이스가 구축한 ‘제조창업 전주기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이 지역 창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질적 고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대학생과 지역 청년, 주민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시킨 점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내달 3일 재개관

19억 투입 노후시설 리모델링 완료

광주 서구 금호동790번지(품곡로 182)에 위치한 ‘빛고을국악전수관’의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27일 완료된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올해 3월3일 재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9억300만원을 들여 공연장, 로비, 전시실 등을 개·보수하고 있다.

지하 2층 공연장에는 무대 확장, 바닥 마감재(카펫→목재), 교체, 객석·음향·조명 장비 교체 등을 진행 중이다.

지하 1층 로비는 천정·벽체·바닥 마감재와 계단 난간 등을 교체했다.

지상 1층에는 전시실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방문시공, 국

악기 수납공간 설치, 화장실 확장 등을 하고 있다.

전통악기인 장구모형으로 단장된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지난 2002년부터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국악한마당과 국악문화학교, 방과 후 어린이 국악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국악인구의 저변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빛고을국악전수관은 국악을 보다 쉽게 접하게 하는 공간이다”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락, 진정한 국악의 멋과 아름다움, 이용자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전남 쌀 소비촉진·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최근 KTX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고품질 브랜드 쌀(500g)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전남도, 광주시, 농협RPC 광주전남협의회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올해부터 광주 모든 중·고생에 ‘꿈드림미’ 지원

1자녀 가정도 포함…교육 공정성·기회균등 강화 기대

연간 중학생 최대 60만원·고등학생 100만원 교육경비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드림미’ 지원 대상을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꿈드림미는 2024년 중3,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중2·3, 고2·3으로 확대됐다. 이어 오는 3월부터는 그동안 제외됐던 1자녀 가정을 포함해 모든 중·고등학생이 꿈드림미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학생 1인당 연간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으로, 학교에서 이미 지원된 수학여행비나 입학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개인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교재·도서, 학용품 구입비, 대학 입학원서비 등 다양한 교육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꿈드림미 대상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정, 학부보 교육비 부담 감소는 물론 교육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단 한 명의 학생도 꿈드림미 수혜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3월부터 전용 누리집을 개통해 신청 일정과 방법, 지원 대상, 사용처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 기준에 따라 환수, 이용 제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꿈드림미 대상 확대는 민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국가의 자연보전 정책이 만나 숨겨진 습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뜻깊은 사례다”며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를 추진하고,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무등산·월출산 습지서 멸종위기종 확인

샬·두견·소쩍새 등

무등산과 월출산 국립공원 내 습지에서 서식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새롭게 확인됐다.

1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무등산 원효계곡습지, 월출산목동지습지를 조사한 결과 샬, 두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된 습지는 그동안 위치와 존재만 확인됐을 뿐 생물상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던 신규 습지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들 습지의 식물·식생·조류·포유류 등 8개 분야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무등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샬, 천연기념물 두견이 확인



샬



두견새

됐다. 식물 92종을 비롯해 저서생물(해수와 담수 서식지의 바닥에 사는 생물) 33종, 조류 29종, 포유류 9종, 양서·파충류 7종이 조사됐다.

월출산에는 샬, 천연기념물 소쩍새가 있었고, 식물 133종, 조류 32종, 저서생물 18종, 양서·파충류 9종, 포유류 6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립공원 습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이라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를 물막이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민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국가의 자연보전 정책이 만나 숨겨진 습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뜻깊은 사례다”며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를 추진하고,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7:15	달달	08:04
☀️	예보	18:18	달달	20:13



광주	☀️	-3~9
목포	☀️	-2~5
여수	☀️	-2~10
순천	☀️	-4~12
구례	☀️	-6~11
광주	☀️	-4~8
임도	☀️	-2~9
흑산도	☀️	2~7
진남	☀️	-5~11
진도	☀️	-2~6

목포	밀물 (고)	03:14 / 15:44
	썰물 (저)	08:33 / 20:59
여수	밀물 (고)	10:32 / 22:42
	썰물 (저)	04:03 / 16:32

‘잡풀 태우다’ 60대 여성 화상

마네편 ○~전도군 지산면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18일 진도소방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34분 진도군 지산면 한 입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5대, 소방대원 1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후 1시53분 불길을 잡는데 성공.

이 불로 묘지 2가와 임야 0.09ha 등이 소실됐고, A씨(62·여)가 스스로 불을 끄려다가 목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소방당국은 잡풀,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중.

진도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영향으로 임야 화재 위험이 매우 높다”며 “농산물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송태영 기자 sty1235@

남구, 스마트도서관 6호점 구축

1억6300만원 투입…6월 마무리

광주 남구가 효천1지구 아파트 단지과 산책로에 인접한 지역에 스마트도서관 6호점을 조성한다. 남구는 사업비 1억 6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스마트도서관 6호점 조성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 6호점은 효천역과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사이에 들어선다.

이곳에 새롭게 짓는 이유는 스마트도서관 5호점 가운데 인구수가 많은 효천지구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거점 도서관인 구립2동 행정복지센터 뒤 2호점, 백양로 남광주농협 맞은편 3호점, 다목적체육관 입구 4호점, 효천지구 효천공원까지 5곳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